

gallery 숨 개관 10주년 기획 초대전

‘PLATFORM AGAIN’ 15명 작가 릴레이 전시... 6~18일 김철규 개인전

gallery숨은 2023년 3월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PLATFORM에 참여했던 47명의 작가 중 15명이 PLATFORM AGAIN이라는 기획 명으로 릴레이 개인전을 펼친다.

이에 따르면 gallery숨은 개관 이래 'gallery 숨'이라는 공간이 오롯이 작가들의 장(場)이 되길 희망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23년 상반기 중에 김철규, 이길빈, 이주리, 이보영, 송지호, 이홍규, 고보연, 최수미 작가의 전시가 마련됐다. 이에 먼저,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김철규 개인전이 열린다.

김철규 작가는 현재 조형예술학 박사다. 국립군산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후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작가에 따르면 회화의 본질이 물질의 더함을 통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더하기의 개념이라면 나의 회화는 이와 반대의 개념인 물질을 덜어내기 또는 빼기의 개념을 통해 조형적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

화면의 색을 덜어내거나 갈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표현된 주름은 지나온 삶의 흔적을 화면에 채움으로써 형상화하는 것이다. 인생은 모든 것을 채우고 비워내는 과정의 연속이듯 무엇을 비우고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 또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주름은 단지 세포의 노화뿐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살아온 환경의 영향과 육체의 운동 그리고 내면의 감정과 생각이 꾸밈없이 작용하여 그 어떠한 타자의 관여도 없이 우리 몸에 진실한 기록으로 육체에 새겨진 것이다. 또한 인간이 몸을 통해 인간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 중 문명이 아닌 삶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름이다. 그래서 주름은



김철규 개인전 포스터

한 사람의 내러티브,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인간임을 보여준다.

주름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도 가장 세계와 맞닿아있는 살갗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인간과 세계의 통로이자 매체이다. 과거와 현실의 삶이 공존하고 내면과 세계를 넘나들며 엮고 얽히게 하는 작용과 여기의 방식으로부터 저기의 방식으로 이행하는 작용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래서 주름으로 전해지는 느낌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체화되어 나타나는 삶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이 더할수록 뚜렷해지는 주름은 현재진행형이며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유한한 인간의 삶을 인정함을 통해 그 한계의 시간 안에서 또 다른 변화를 갖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인으로써 인체의 주름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생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받아들이야 하는 변곡점이며 자기 육

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이는 변화의 시그널이다. 그러므로 주름의 받아들임은 삶 전반에 관한 긍정의 신호이며 진보적 방향으로의 진행인 것이다.

인체의 주름 표현은 유한한 삶, 허무의 이야기가 아니며 뒤늦은 주름의 인지를 통한 후회의 삶이 아닌 지각의 삶을 통해 변화와 확장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또한 추함의 인식을 넘어 주름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의 재해석을 통해 미(美)로서의 인지 변화를 꾀하며 초월적 변화를 통해 포용적이며 진취적인 방향으로 지향하려는 것이다.

인간이 인식하고 인지하는 사고의 범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한다고 볼 때 주름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통해 미적 인식과 인지 변화를 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한 개념으로 세상을 대하고 인간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한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 외에 변화될 수많은 가치와 관점의 변화에 대하여 나는 긍정적으로 상상해 보려 한다. /정은성 기자

전북 서양미술 역사 '한 눈에'

미술관 스텝 1층 기획전시실서 'since 1945_전북의 서양화가'展 개최

전북 서양미술의 역사를 한 눈에 조망 할 수 있는 연속 기획전-2부 '전북 미술의 추상화'展이 미술관 스텝(대표 서정만) 1층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관람료는 무료다.

이번 전시에는 직간접적으로 추상미술의 영향을 받은 전북서양미술 추상화의 대표작가 8인의 50~120호 대작(大作) 작품이 전시된다.

이에 따르면 주목할만한 작품은 문복철의 '무제(無題)'로 그의 작품에서는 구체적 형상이나 추상만이 아닌 물질(종이)과 색채,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행위의 기호들이 화면에 자유롭게 등장하면서 다양한 조형적 변화와 양식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되며, 한국적 미감과 정서를 바탕으로 현대미술의 추상 양식과 결합을 시키면서 독자적 화풍을 이끈 작가다.

이 외에도 고희환(전주사범대 졸업), 류경채(전주사범대), 박장년(군산대 교수), 박혜련(남관 제자), 이항성(익산 출생), 임상진(전북대 교수), 조재강(김용봉 제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모더니즘의 물결속에서 단색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현대 미술사에서 전북 화가들의 활동과 작품은 어



떠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로는 전화(063-285-056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 폐시설 등 활용 문화예술공간 구축 대상지 2개소 선정

전라북도는 '폐시설 등 활용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 대상지로 군산과 익산,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으로 폐공장 등 방치된 시설을 활용해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작·전시·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먼저 '군산 탁류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백릉 채만식 선생의 소설 '탁류' 배경지인 군산 일도심 주변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익산 아트센터 문화예술공간 재생 사업'은 구도심의 침체된 문화공간 재생을 위해 익산역 주변의 문화센터를 예술 창작, 전시 및 관

광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 사업 심사를 총괄 지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황순우 이사장은 전주 팔복예술공장 재생을 총감독한 사례를 들며 "방치된 폐시설이 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변화하는 데는 지역민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콘텐츠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청년 문화 활동가 양성을 통해 장기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장은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 명소와 어우러진 지역 재생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재학생, 퇴임하는 이남호 전 총장에 문회루 펜화 헌정

지난 2월 28일자로 전북대학교에서 명예 퇴임하는 이남호 전 총장에게 전북대학교 재학생이 그린 문회루(文會樓) 누각 펜화를 헌정했다고 전했다.

이 누각은 개교 70주년 기념광장에 이남호 교수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건립한 것이다. 누각의 이름은 논어의 안연편에 나오는 이문회우(以文會友)에서 따온 것으로, '학문으로써 사람을 불러 모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펜화를 헌정한 학생은 "학교의 정문, 문회루 등 여러 전통한국 건축물의 아름다운 자태는 학생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 줬다. 이러한 건

축물들이 이남호 전 총장님께서 추진해 조성됐다는 것을 알게 돼 작은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남호 전 총장은 "저의 뜻을 알아주는 학생들이 있어 감개무량하다"면서 "요즘 인구 절벽 문제로 지방대학은 물론이고 지방도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데, 이러한 때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떠나지 않거나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타 지역에서 또는 세계 각처에서 인재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는 창의성이 풍부한



모험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모험생이 스펙이라면 모험생은 스토리다. 이러한 점에서 최고의 스펙은 풍부한 스토리"라면서 "앞으로 청소년들에게는 모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도립미술관, '전북청년 2024' 공모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청년 미술가를 발굴 조명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청년'은 전북도립미술관이 해마다 3명 내외의 역량 있는 청년 작가를 선정해 신작 제작 지원 및 비평가 1:1 매칭, 그리고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공모 기획전이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전북청년'은 지금까지 지역 미술계에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동시대 미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매해 전북의 청년 작가를 조명해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시각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총 3인의 청년 미술가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개인전 3회 이상 개최한 자, 전라북도 작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작품제작비로 1인당 기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시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전시 홍보 및 평론가와의 1:1 매칭이 제공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며, 모집 공고문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로는 전화(063-290-6870)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